



김기영 | 경찰대학 교수

노후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옛날에 나이 많고 병든 어머니를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 속에 내려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아서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애야, 산이 험하니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그리고 길을 잃을까 염려가 되어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으니 어둡기 전에 빨리 가거라” 라고 하셨다. 아들은 풍속에 따라 어머니를 고려장하였지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모셔와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다는 옛 설화가 있습니다.

고려장이란 고구려 이전 부여 때부터 전해오던 순장 풍속으로 늙고 병든 사람을 한적한 곳에 무덤처럼 구덩이를 파고(壙中) 음식과 함께 모셨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속전인바 이는 지역마다 방법은 달랐지만 식량이 절대 부족하였던 미개사회에서 질병의 확산 예방책의 일환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노쇠자에게 행해지던 공통적인 생활의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날에도 자식들에 의해 고의로 버려지는 부모들, 학대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시설 앞에 유기되는 부모들, 입원시키고 소식없는 자식들, 이민을 가고 소식이 없는 자식들, 부모를 버리고 연락도 없는 자식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인 현실인바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얼마전 7남매를 둔 94세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수 년간 직접 간병하다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목을 조르고 자기도 목매 죽으면서 장례비용과 유서를 남겼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한 없는 사랑 즉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강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임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 73세 여자 80세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04년 8.3%(418萬)로 2010년 10.7%, 2020년 15.1%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되지만 반대로 14세 이하는 2000년 21%, 2010년 17%, 2020년 14%로 점차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사회가 경제활동 인구(20세~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은 2004년 11%, 2010년 14.7%, 2020년 23%가 예측되어 노년층은 경제활동 인구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장애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은 전혀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렵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식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91%가 건강에 이상이 있고 71%는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34만명에 혼자 사는 노인은

21만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노인 자살도 2003년 3,653명으로 2000년보다 57%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수입도 없어 생계가 어렵지만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첫째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건강입니다. 치매, 질병으로 가족들 간병인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식사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지 가족도 건강관리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자식들을 위한 희생도 보람으로 빛나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건강의 유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우리 노인세대는 가족 부양으로 노후대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한다던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생계비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면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어른의 품위도 유지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는 젊을 때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늙어서는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란 동성이든 이성이든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친구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평소에 대화할 친구,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노년의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할할 고민을 친구와 상의할 수 있는 친구라면 많을수록 더욱 좋겠지요.

TV에서 79세의 며느리가 106세의 시어머니와

모녀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정답게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나이인데도 100세가 넘는 시어머니의 발을 씻어 주면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 시장 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유대 특히 딸같은 고부관계가 건강유지와 장수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령층의 복지는 국가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대폭 확충함은 물론 종교, 사회, 대기업들이 노령층에 관한 관심과 연구로 복지 증진책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없는 노령층과 젊은 가정의 결연사업, 아동입양처럼 노부모 입양사업 추진, 고향을 떠난 젊은 학생들과의 결연사업, 이웃 독거노인과의 교류사업등 노령층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효친이란 이론이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회 가족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노인복지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좋은 노인 복지 국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짜내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의 집행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을 경우는 정책f;w안부서 책임자의 민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책임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위한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가운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킨다면 노인 복지는 당연히 향상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